

4·11 총선 돋보기

(6) 국회의원이 뒤통자

200가지 특혜... 놓치면 너무 큰 상실감

4·11 총선 공천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공천을 받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현역의원들은 불같이론과 용퇴설에도 아랑곳 않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생사여탈권을 쥔 공천심사위원들의 전화번호를 따는 것은 기본이고 인맥을 동원해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같이 현역의원들이 금배지 사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의원만 되면 특혜 200가지=여의도에선 의원만 되면 특혜가 200가지에 달한다는 말이 나온다. 2만 5000원짜리 의원배지가 '금배지'로 불리는 이유다. 우선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다.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공기업,

보좌진 월급·세비·차량유지비 등 연 5억 지원 물갈이·용퇴론 압박에도 '금배지' 목숨 걸어

이익단체, 정부 공무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할 일이 많아지게 하는 힘이다.

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현행법을 제외하고 체포·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 안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이 있다.

해외 출장시에도 의원들은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철도·선박 등의 비용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출장비로 지원받아 무료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겸직도가

높고 장관직도 수행할 수 있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의원 개개인에게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간 비용은 5억원에 달한다. 세비(월 941만원), 의원실 경비 지원, 보좌진 월급(의원 1인당 연평균 3억2000만원), 차량 기름값(월 110만원)도 포함돼 있다.

◇금배지 상실의 공포=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번 금배지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권력 상실에 따른 공허함 때문이

다. 또 일반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에 따른 무력감·생활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주변의 태도 변화도 걱정이다.

현역 의원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다면,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경제난도 있지만, 주변인들의 굶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라며 "이는 전직 의원이 있는데, 낙선 후 한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했다. 당시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물갈이 여론과 용퇴론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의원들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다. 권력 상실에 따른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현역 시절의 화려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선전 정상회담 남북관계 도움 안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인터뷰



목표명예시민이자 여수엑스포 홍보대사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초청간담회에서 '공정과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강연을 마친 직후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11 총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후방 지원사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총선 전담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또 호남 배려정책에 대해선 "여수엑스포 지원 등 정성껏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났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미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사안이다. 내가 대변 배구협회장인데, 중국 웨이저중(魏紀中) 국제배구연맹(FIVB) 총재를 만나러 간 게 주목적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호남선·F1·여수엑스포 정성껏 챙겼다고 생각”

▲이벤트성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 간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 이 벤트성 남북관계는 지양한다.

-4·11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대권 주자설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욕심부림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총선에 대해선 마음 비우고 있다. 현 정부 전 대통령실장으로서 하던 일 중 밖에서 도울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지내겠다. 대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현 정권에서 호남 배려정책이 있었다고 보는가.

▲제가 F1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새만금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모든 정책결정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상황이지만, 호남선·F1·여수엑스포 지원 등에 있어선 정성껏 챙겼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권 지역에서도 보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영호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편 가르기 현상이 문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편 가르기가 전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 편 가르기 현상이 지역민들이 비이성적인 정치상황에서 벗어나 '집단 이성'으로 심판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치발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의원 총선 줄서기 극성

특정후보 지지·상대후보 비난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른 예비후보들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저마다 각 예비후보 편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상당수가 2년 후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이른바 '보합'을 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나주·화순 전직 단체장과 전·현직 지방의원 등은 지난 16일 '최인기의원이 지역 분열을 일으키고 재선중식의 꿈수며 한미 FTA에 대한 무소신, 4대강 사업 진도사 역할 등을 했다'며 최 의원의 공천을 반대했다.

같은 날 최 의원을 지지하는 전·현직 지방의원 등도 "특정의원 공천배제 탄원서 살포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최 의원을 두둔했다.

영광·장성·함평에서도 전·현직 공역, 기초 의원 등 수십명이 나서 현직 의원 퇴출 등을 주장하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여기에 최근 군 공항 이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상정 무산되자 현 김동철 의원과 전갑길 예비후보 진영이 가지 돌진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공역의장이 성명서를 내고 특정 후보 편들기에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광주 서구 갑 선거구에서는 지역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일부 지방의원들이 성명을 냈다가 상대후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최 의원은 "통합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매주 동별로 내부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가 나쁘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라며 "2년 후 지방선거 공천권을 생각하면 지지후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與公천위, 오늘 부산서 첫 면접

21·23일 광주·전남·북

새누리당이 첫 면접지를 부산으로 잡은 것은 통합민주당 문건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이른바 '문성길 트리오'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도전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야권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위는 21일에는 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제주 지역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22일 서울, 23일 인천·대전·강원·충북·전남, 24일 경기 순으로 차례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고속철 차량공급자 '현대로템'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공급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고속철도 차량은

새누리당이 첫 면접지를 부산으로 잡은 것은 통합민주당 문건인 상임고문과 문성근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이른바 '문성길 트리오'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도전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야권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위는 21일에는 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제주 지역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22일 서울, 23일 인천·대전·강원·충북·전남, 24일 경기 순으로 차례로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총 22편성(220량, 7360억원)으로, 그동안 현대로템의 KTX-산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희태 의장 조사... 돈봉투 지시 추궁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이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도착, 서류문치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검사 3명을 보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공판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환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박 의장 조사에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송강·박태호 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장소에는 검사 3명과 박 의장 측 변호인만 들어갔으며, 나머지 비서진 등은 본관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7·3 전대를 앞두고 공생당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 캠프 차원에서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개입 여부를 신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동행동(근린시설) 대1181㎡, 전2850㎡ 강정가 31억9천 최저가 14억3천	동양동(근린시설) 대510㎡, 전3343㎡ 강정가 39억3천 최저가 27억5천	수기동 [12층관공호] 대923㎡, 전7585㎡ 강정가 71억8천 최저가 23억4천	경북구미(골프연수장) 대51503㎡, 전7399㎡ 강정가 112억6천 최저가 38억	목포해안동(근린주택) 대462㎡, 전462㎡ 강정가 5억 최저가 2억2천	목포달동(물류터민) 대32840㎡, 18979㎡ 강정가 187억6천 최저가 53억8천	오성동(공정) 대1823㎡, 전1467㎡ 강정가 16억 최저가 9억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전복부안 ▶ 대지 1491평 ▶ 건물 562평 ▶ 감정가 11억7천 ▶ 매매가 6억45천(협의후결정)	▶ 광주 쌍양동(유형시설) ▶ 대지 1520평 ▶ 건물944평 ▶ 감정가 89억7천 ▶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 해남 명갈골도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 ▶ 감정가 83억 ▶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 군산 바이오디젤공장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43억 (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텍)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 곡성석곡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정가 44억4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정가 135억 ▶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순천 조래동(주차빌딩) ▶ 대지 646평 ▶ 건물 1708평 ▶ 감정가 43억 ▶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곡역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총원이사 010-8227-7759

상대 대923,21580 74억9천 2294평	경매 대2075,212510 124억7천 55억8천	취자 대1181,212850 31억9천 14억3천	비고 관공호 10층사무 3층근린시설 4층근린시설 1층8층근린시설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2층근린
---	--	---	---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림팀장 010-9900-3002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1학기(15주) 수강료 2012년 2월 25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 광주대앞(지하)호프 분식60평
▶ 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 계림동 이마트 1층 1칸

전체매매가 2억5천3백
대출+보증금 공제후
실인수가 3천5백만원
상당 010-6654-6888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N하우스광주전남지사앞 유티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료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을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식당.매점. 현재영업중.매매가 9억원.

Tel : 대표.062-233-2222
직통062-373-3939. HP : 010-3616-8698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영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핫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복로,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 부산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2중상가지역, 담 2334㎡ 매12억 보충금20억 월임대료1,200만원
- 부산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보충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90만원(9억5천만) 임대보충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 진영동 5층월임대 건물(평당 350평) (매가75억) 임대보충금9천만원/월임대료3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1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혹가능 사당영양동)
- 상무지구1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능 사거리코너)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750만원(상무지구)
- 상무지구3,400㎡(941,000평) 평당750만원(상무지구) (원사오,오피스텔용 적합)
- 동림지구중주단지 운영-5남 2건대(4,470㎡(91,352평) -평당330만원(예상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따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핫 0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주차장 1층)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군,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격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중주거지역, 담 2334㎡ 매12억 한도권, 계획도로 거주시가지 상승 폭 큼 투지 유형 원룸 전용 보증 부속 여를 한달만 영입해도 년수익 보장
- 상록해수욕장 펜션 부지 계획리지역, 전 1554㎡ 매10억 상록해수욕장 입구 2차선 접한 토지로서 향후 지가 상승 비대 조망권 양호
- 격포 공항 이촌시트즈펜션 부지 계획리지역, 전 1654㎡ 매7억 오토경기장에 위치한 투지 펜션 운영시 고소득 보장, 비대 조망권 최상
- 상록해수욕장 펜션건물 대 942㎡, 전 264㎡ 매9억 산속 건물, 객실 7개로 월매출 91500만 원성공
- 격포 체육관 호텔 및 리조트 부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전 2995㎡ 매50억 5층건물, 인허가 완료 변산반도 최고의 상업지 비대조망권 최고! 향후 토지가 상승 기대 및 운영시 고소득 보장

저희는 변산반도 펜션 개발 전문업소로서 펜션 운영서 투자 대비 년소득 25%이상 보장된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원룸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펜션사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062-952-5960, 010-8004-5900